

□ KIC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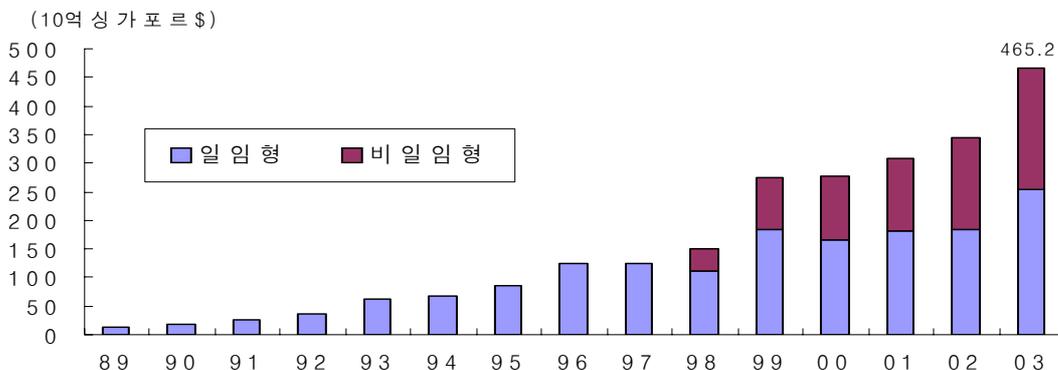
- 싱가포르 GIC로부터 얻는 교훈 -

1. 싱가포르 자산운용업의 성장 현황

○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업은 외환시장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허브 구조에서 탈피하고,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0년대 말부터 집중 육성 되면서 빠르게 성장함

- 싱가포르 금융허브, 1990년대 이후 대외여건 변화로 위상이 크게 약화됨
  - (동남아금융위기) 싱가포르 금융허브는 협소하고 미흡한 국내 기반으로 인해 주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위상이 약화됨
  - (중국의 부상) 중국이 경제개방을 표방한 이후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영업거점을 설치하면서, 북경과 상하이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
- 새로운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자산운용업 집중 육성으로 싱가포르 자산운용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
  - 관리자산 규모는 1998년 1,502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003년 4,652억 싱가포르달러로 3배 이상 급등함
  - 이중 일임형(discretionary) 자산은 2,546억 싱가포르달러, 비일임형(non-discretionary) 자산은 2,106억 싱가포르달러임

<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규모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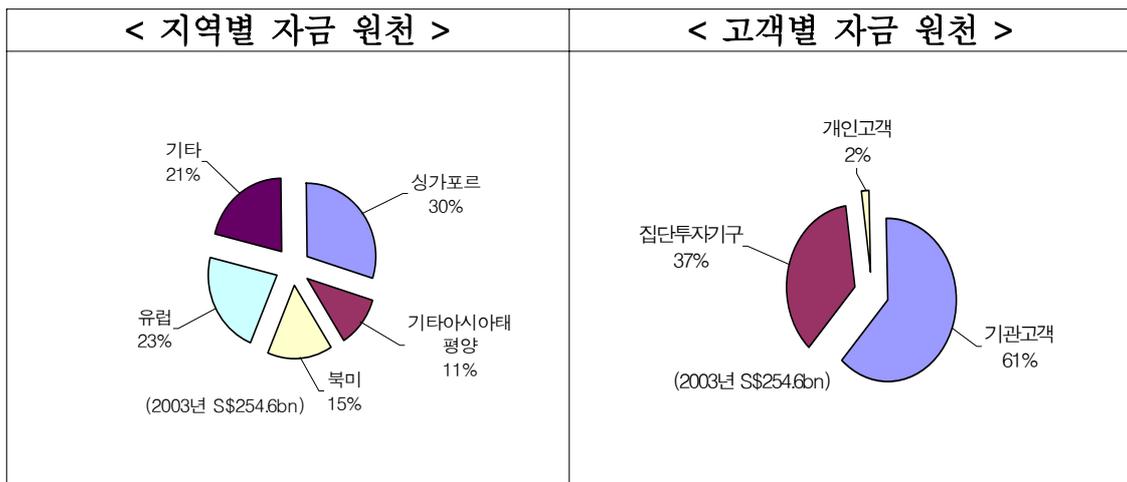
자료 : 2003년도 싱가포르 자산운용업 서베이

- 특히 투자자들의 아시아지역 재평가, 지역 포트폴리오 관리의 싱가포르로의 집중 경향,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절상 등에 기인하여 지난 6년간 비일임형 자산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

○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의 자금 조달과 운용은 글로벌마켓을 대상으로 하며, 주식, 채권 등 자본시장 상품 위주로 운용하고 있음

- 일임형 펀드의 자금원천은 지역별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터 조달되며, 고객별로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<sup>1)</sup>

- (지역별 자금원천) 2003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30%, 유럽 23%, 북미 15%,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11% 등
- (고객별 자금원천) 기관고객 61%, 집단투자기구 37%, 개인고객 2%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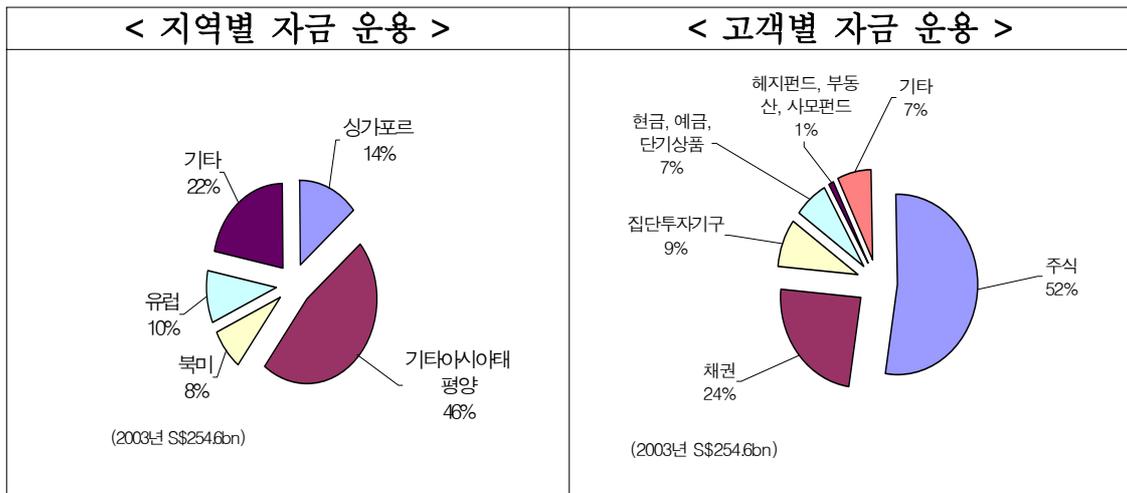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2003년도 싱가포르 자산운용업 서베이

- 자금 운용도 아시아·태평양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, 주식 등 다양한 자본시장 상품 위주의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음

- (자금운용 지역) 아시아·태평양지역에 총 펀드의 63%가 투자(싱가포르 14%, 중국, 한국, 타이완 등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·태평양지역 46%), 유럽 10%, 북아메리카 8% 등
- (자산 구성) 2003년 기준 일임형 자산의 구성 비율은 각각 주식 52%, 채권 24%, 집단투자기구 9%, 예금 7%, 단기금융시장상품 1% 등

1) 비일임형에 대한 자료는 발표되지 않음.



자료 : 2003년도 싱가포르 자산운용업 서베이

- 2003년 현재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는 230개이며, 이 중 순수 국내투자기업(지분의 50% 이상이 싱가포르 국민에 의해 취득된 회사)은 전체의 42%인 96개임
  - 10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일임형 관리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수는 45개, 100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회사도 9개임
  - 싱가포르 자산운용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포트폴리오매니저 688명, 투자분석가 275명, 자산배분전문가 및 경제학자 23명 등 총 986명
  -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투자분석가 중 854명이 상품 전문가이며, 이중 대다수가 채권 전문가임
  - 2003년 말 현재 401개의 집합투자기구(Collective Investment Schemes: CIS) 관리자산은 192억 싱가포르달러 (이중 CPF인증 CIS는 전체 CIS의 57%인 230개, 관리자산규모면에서는 70%를 차지함2)

## 2. 싱가포르투자청(GIC)의 역할

- 싱가포르 자산운용업의 성장 배경에는 새로운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투자청(GIC)의 역할이 큼

2) CPF(The Central Provident Fund)는 싱가포르 사회보장계획으로서 퇴직, 건강, 주택, 가족보호, 자산향상 등을 지원함

- (정부의 노력) 싱가포르 정부는 자산운용업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을 강화함

- 1999년 싱가포르 통화당국(MAS;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)은 다수의 부티크매니지먼트 회사의 자격을 인정하여 시장을 확장시킨다는 골자의 라이선싱제도를 확립
- 또한 재무인센티브제도, 적격 프로세싱 서비스 회사를 위한 세금인센티브, 보험업인센티브, 인증신탁에 대한 세금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을 통해 자산운용업을 육성

- (GIC의 역할) 정부자산을 위탁관리 하기 위하여 설립된 싱가포르투자청(GIC;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)이 과감한 투자로 자산운용업 성장의 주역 역할을 함

-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업은 100% 정부출자기업인 싱가포르투자청(GIC)과 테마섹홀딩스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, 특히 GIC의 막대한 규모의 자산운용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, 싱가포르로의 정보와 자본 유입을 촉진시켜 자산운용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음<sup>3)</sup>
- 한국투자공사(KIC) 설립은 싱가포르투자청(GIC)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함
- \* 싱가포르투자청(GIC)은 1981년 싱가포르 정부가 정부자산(장기 공적외환보유고 등)을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음<sup>4)</sup>

○ (GIC의 운용방식)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바탕으로 자산운용범위를 확대하며 적절히 외주도 활용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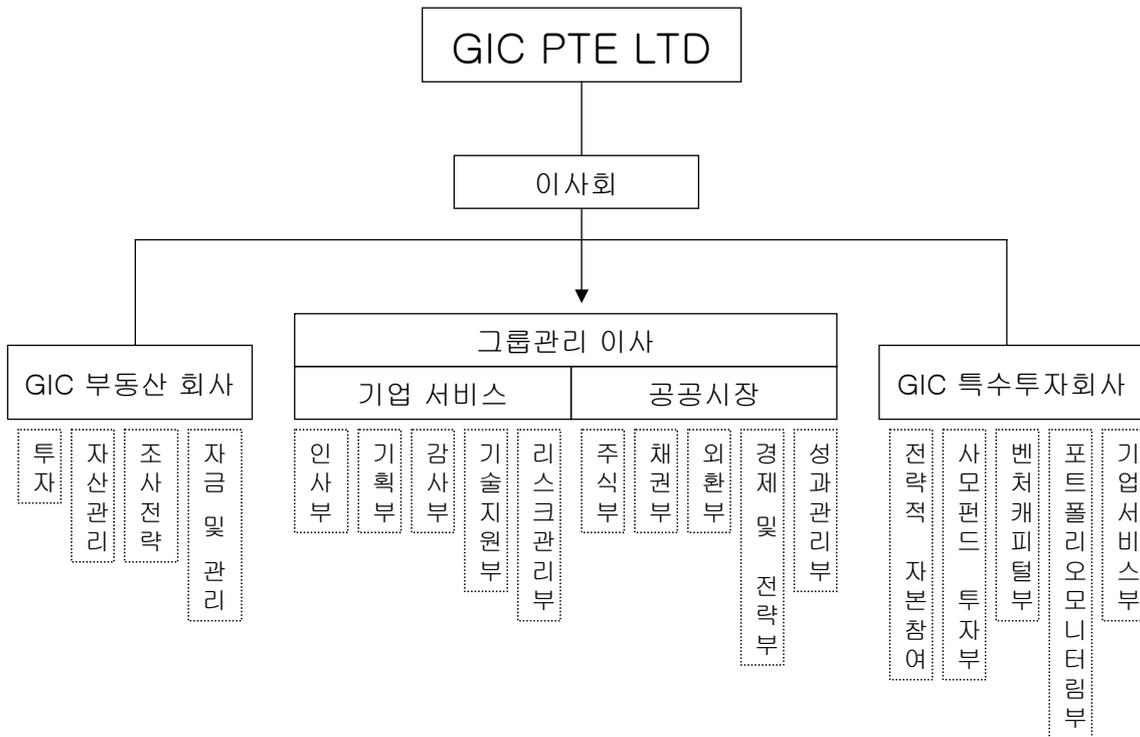
- (독립된 운용) 정부출자 100%의 공기업이지만 정부와 의회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인 민간기관으로 민간투자자와 같이 활동

3) 싱가포르투자청(GIC)은 주로 펀드매니저에 의한 1~2년 정도의 중기 자산운용에 주력하고 있음. 반면 테마섹홀딩스는 원래 항공, 전력, 조선 등 자국 기간산업 투자에 주력하였으나, 최근에는 DBS 은행(싱가포르), 다나몬은행(인도네시아), ICIC 은행(인도) 등 아시아권 은행에 투자 포커스를 맞추며 Pan-Asia 전략을 펼치고 있음(한국에는 2003년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BII 은행을 인수하였으며, 2004년 하나은행 지분 9.99%를 인수하였음).

4) 1981년 리관유 전 총리에 의해 미화 75억 달러의 운용 자산으로 설립되었으며, 리관유 총리는 아직까지 GIC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음.

- GIC의 자산운용 규모는 현재 1,000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며, 고수익을 창출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중 하나로 자리매김함)
- (자산운용의 다양성) 국제적인 영업망을 바탕으로 상장주식, 우량회사채 뿐만 아니라 부동산, 사모펀드,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운용
  - GIC는 GIC사, GIC 부동산회사, GIC 특수투자회사 등 3개의 회사와 해외 영업망으로 구성된 민간 자산운용 전문 그룹임
  - 국제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개 해외지사(뉴욕, 샌프란시스코, 런던, 베이징, 도쿄)를 두고, 30개 이상의 해외시장을 상대로 영업

< GIC의 조직 >



- (자산운용의 전문성) 인력 면에서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, 설립 초기부터 영국과 미국의 투자 매니저들을 고용하여 투자 시스템 개발
  - 자국 고유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회사직원을 타 펀드회사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하고, 외부에서 교육받은 사람을 적극 유치
  - 현재 730명의 임직원 중 130명이 외국에서 영입

5) 이는 GIC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임. GIC는 2001년 이후 투자 내역을 전면 비공개하고 있는 등 폐쇄성이 짙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.

- (외주 확대) 전략적으로 정부기금을 해외 우수 자산운용사에 외주를 줌으로써 외국 금융기관들의 싱가포르 진출을 유도함

### 3. 한국투자공사(KIC)에의 시사점

- 정부는 2,000억불 이상 되는 외환보유고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, 자산운용업 중심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2005년 7월 1일 한국투자공사(KIC)를 설립하였음
  - 초기 운용자금으로 한국은행 보유 외환보유액에서 170억 달러, 외국환평형기금에서 30억 달러 등 총 200억 달러를 마련함
    - 향후 운용 실적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국민연금 등 연기금 등으로부터도 자금을 위탁 받아 운용할 수 있음
- 한국투자공사(KIC)의 설립은 국내 자산운용업을 발전시키고, 자산운용사 중심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의 첫 걸음이 될 것임
  - KIC의 설립은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, 금융전문인력 확보 등 동북아 금융허브가 성공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    - 국내 자산운용 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에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시현하였지만, 아직 선진국과 대비하여 경쟁력이 취약하고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
    - KIC는 자금위탁을 통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로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 - 동북아 경제의 위상, 역내 막대한 외환보유고, 고령화 및 부유층 증가 등으로 잠재적 자산운용관련 특화금융허브의 성공 가능성은 높음
    - 저금리 추세 속에서 고령화 사회가 대두되면서 국내 자산운용 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
    - 세계적으로 부유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부유층 시장도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, 거대한 중국의 부유층 시장도 잠재

- 싱가포르투자청(GIC)이 싱가포르 자산운용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과 같이 KIC의 설립이 국내 자산운용업 발전과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함
  - 비록 싱가포르와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다르지만 싱가포르투자청(GIC)의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음
    - KIC의 중립성 확보 (정부의 역할은 사후감독 기능으로 제한)
    - 해외 우수 자산운용사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위탁 운용 확대 및 국내외 자산운용사 위탁 운용의 경쟁체제 구축
    - 사모펀드, 국내외 부동산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, 투자 방향도 안전성 보다는 리스크관리가 뒷받침된 수익성 창출 위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
    - 성격상 위험투자에 수반되는 만큼 리스크관리에도 철저해야 하는 바, 독립된 리스크관리 부서의 설립과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함
  -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제 외환시장에 혼란을 주는 운용은 제한해야 할 것이며, 가급적 투명하게 자산운용을 하여야 할 것임
    - 외환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외환보유액 운용의 신중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
    -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후적으로라도 자금운용 상황을 공개하여 운용상의 불투명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
  - 향후 자산운용업 중심의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역과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 확립과 경쟁력 있는 인프라의 구축도 시급함
    - 특히 외국 기업 진출 등에 대한 개방적인 마인드 확립
    - 영어에 능통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겸비한 금융인력(특히,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금융전문) 육성 및 확보
    - 의료, 교육, 교통, 환경 등 수준 높은 '삶의 질'이 보장되는 생활여건 마련
    - 현재 서울 시내 파이낸스센터(GIC 소유)에 입주 예정된 KIC를 향후에는 여의도에 건립될 국제금융센터(여의도공원앞 중소기업 전시관 부지)로 이전하여 여의도를 자산운용업 금융허브로 발전시킬 필요 (규모의 경제)

박덕배 연구위원 (3669-4009, dbpark@hri.co.kr)